



# mi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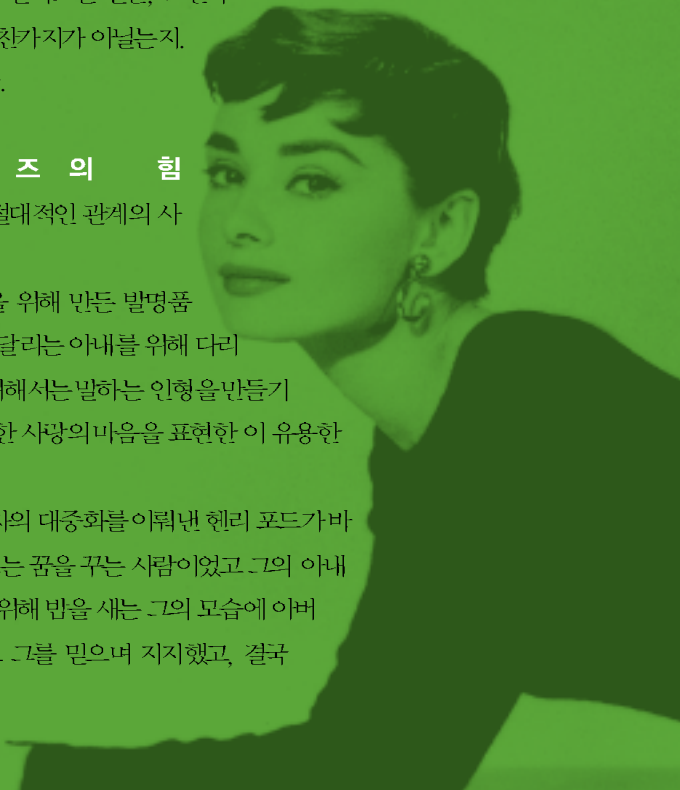
## 발명왕 에디슨에게도 뮤즈가 있었다

신화를 읽는 재미가 뭘까? 그것은 신들의 모습을 빌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뮤즈는 단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의 작품에서 나타난 뮤즈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지혜와 인변을 이용해 왕들과 시인들의 정신을 계발시키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현실 속의 뮤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대답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발명가 혹은 예술가의 곁에서 창조적 열정에 불을 지피는 모든 것이 뮤즈가 될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게 하거나,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영감을 불어넣었던 뮤즈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은, 도전과 창조로 대변되는 벤처인들이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아찔한지, 혹시 자신의 뮤즈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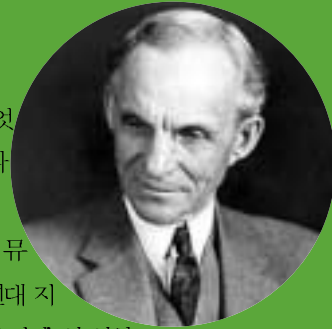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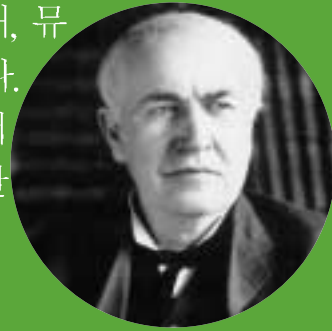
**에 디 슨 에 서 앙 드 레 김 까 지 , 뮤 즈 의 힘**  
신화 속의 뮤즈가 신이었던지 신뢰와 믿음, 혹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인 관계의 사랑을 뮤즈로 둔 인물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아내와 딸을 위해 만든 발명품에는 그의 이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그는 가사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다리미, 토스터, 헤어컬링기, 와플제빵기 등을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딸을 위해서는 밭하는 인형을 만들기도 했다. 단순히 기계의 원리만 좇는 과학자를 넘어,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이 유용한 발명품들은 가족이라는 뮤즈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사랑의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인물이 또 있으니,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뤄낸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현재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는 명구가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엔진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는 그의 모습에 어버지까지 조롱하며 바웃했지만 그의 아내인 클라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믿으며 지지했고, 결국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 사이에서 태어난 9명의 자매, 뮤즈(Muse)는 세상의 모든 예술을 담당하는 여신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비단 신화 속의 인물만은 아니다. 신화에서 걸어 나와, 창조적인 열정에 영감을 불어넣는 모든 것을 우리는 또한 뮤즈라 부른다.



헨리 포드를 자동차왕으로 만들었다. 그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훗날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내 아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소.”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특별한 사람을 뮤즈로 삼아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던 사람도 있었다. 디자이너 지방시와 그의 뮤즈 오드리 햅번. 지방시는 세기의 요정 오드리 햅번의 ‘햅번 룩’을 창조했고, 그녀는 1950년대 지방시 스타일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스승인 발렌시아가의 격려 속에 1953년 영화 ‘사브리나’의 의상을 만들며 오드리 햅번과 우정을 키운 지방시는 그 작품으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타기도 했다. 또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미어 페어 레이디’ 등 그녀의 영화 의상은 물론, 햅번이 타게하기까지 모든 의상 제작과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며 40년간 그녀를 위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한편 이들의 관계가 또 하나의 뮤즈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앙드레제임에게였다. 우리나라에서 ‘피리의 연인’이란 제목으로 상영된 오드리 햅번 주연의 ‘더 퍼니 페이스’를 본 앙드레제임은 영화 속 패션쇼 의상을 보고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그의 패션쇼에 전문 모델이 아닌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도 지방시의 옷이 오드리 햅번을 만나 빛을 발하듯, 패션을 종합예술로 표현하고자 하는 앙드레제임의 바람 때문이라고 한다.

## 때론 신념도 뮤즈가 된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야말로 무엇보다 영감을 불어넣는 뮤즈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바뀐 그들의 뮤즈는 자신의 연인이 대부분이지만, 벤처인들처럼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문화를 주도했던 예술가 중에는 내면의 신념을 뮤즈로 삼아 성공궤도에 오른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과 레디메이드를 예술화한 실험적인 예술가 마르셀 뒤샹이다. 앤디 워홀의 뮤즈는 사람이 아닌 ‘명성’이라는 실체 없는 욕망이었다. 그는 “나는 원래 상업미술가로 시작했는데 이제 상업미술가로 바꾸려고 한다. 상업과 연관된 것은 가장 매력적인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장품’으로써 미술의 새 장을 열었다.

다다이스트의 대표적인 작가 마르셀 뒤샹의 뮤즈는 반(反)예술적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반문명, 반합리적인 예술운동을 뜻하는 다다이즘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이것은 거슬러올라가면, 무소유의 철학을 주창한 기원전 3세기의 화가이자 철학자인 피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그는 욕망이나 집착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운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소변기에 ‘뽀’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처럼, 기존의 일상적 물건에 제목을 달아줌으로써 그 근본 의미를 바꾸는 그의 예술세계가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기술을 대하는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하는 뮤즈, 새로운 분야에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의 뮤즈가 진정한 필요한 사람은 바로 벤처인일 터. 이제 비밀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을 향한 뮤즈의 속삭임을 가만히 들어보자.